그리스 디폴트 사태와 금융위기 우려 국가들

이해랑 연구원

- 2015년 6월 30일 그리스는 기술적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상태에 놓였으며, 최근 세계 경제를 살펴보면 그리스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국가들도 금융위기가 우려되고 있음.

-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의 그리스 구제금융 연장을 위한 경제개혁안 협상이 결렬되며 그리스는 디폴트를 선언하였고, 현재 시장은 향후 그리스와 채권단 간 협상 재개 및 그렉시트(Grexit: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에 주목하고 있음.

  - 지난 6월 22일부터 그리스와 채권단은 경제개혁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이 연금 및 조세정책에 이견을 보이며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에 그리스 정부는 6월 3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채무 15억 유로 (한화 1조 9천억 원)를 상환하지 못하며 디폴트 상태에 놓임.
  - 채권단은 당초 그리스 정부가 제시한 연금 및 조세정책보다 더욱 높은 강도의 긴축정책을 그리스에 요구하였고, 채권단의 경제개혁안 수용 여부에 대하여 그리스 당국은 국민투표를 실행하겠다고 선언함.
  - 국민투표 결과 채권단 개혁안에 찬성할 경우, 그리스는 연내 155억 유로(한화 19조 3천억 원)의 추가 구제 금융을 받을 수 있음.
    - 현재 전문기관들은 그리스의 디폴트를 실질적인 디폴트보다는 체납 상태로 간주하고 있으며, 유로그룹은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그리스와의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힘.
  - 그러나 국민 투표결과 채권단 개혁안에 반대할 경우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긴급자금지원이 중단될 것이며, 이 경우 그리스는 자국 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즉, 그렉시트가 불가피해 짐.
    - 이 경우 그리스는 물가 상승 및 실업률 증가는 물론 그리스 기업 및 은행의 파산 등의 가능성이 커져 실질적 디폴트가 발생할 것임.

■ 한편, 전문가들은 그리스 외에도 여러 국가들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졌음을 지적하며, 향후 미국 금리 인상 시 발생할 파급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의 정부부채비율은 각각 132%, 130%로 그리스(177%) 다음으로 유럽에서 부채비율이 높으며, 프랑스의 정부부채비율은 95%이지만 GDP 대비 정부적자가 4.2%로 이탈리아의 GDP 대비 정부적자 2.9%보다 높아 전문가들은 유로존 내에서 이들 국가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지적함.
- 우크라이나의 경우, 정부가 채권단에게 채무 153억 달러에 대하여 채무 탕감, 채무 만기 연장, 이자 경감 등을 요구하는 채무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7월 24일 이자 지급 전까지 협상이 어려워 보여 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베네수엘라의 경우, 국제유가가 급락하여 재정수입이 감소하면서 대외지급 능력이 약화되었고, 외환보유액이 12년 만에 최저 수준인 164억 달러로 떨어졌으며, 10월~11월 52억 달러의 채무 상환이 예정되어 있어 외환보유액 추가감소가 예상됨.
- 아르헨티나는 이미 2014년 채권단에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라는 미국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면서 기술적 디폴트에 빠진 상태임.
- 또한 전문기관에 따르면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도 향후 미국 금리 인상 시 자본 유출 및 통화가치 급락 등에 따라 금융위기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그리스 디폴트에 따라 시장은 주변국 전염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그리스의 디폴트는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었던 사건으로 시장이 이를 충분히 대비해왔고, 유로안정화기구, 은행 연합,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프로그램 등 금융전염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임.

■ 다만, 그리스 디폴트 사태가 다른 나라의 디폴트 및 신흥국 금융위기와 맞물려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국내 시장에 미칠 복합적인 영향에 대비해야 함.

-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나 경상수지 흑자 등 대외 건전성이 좋다고 평가되어 그리스 디폴트 사태 및 여타 다른 경제 요인의 국내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WSJ, FT 등)